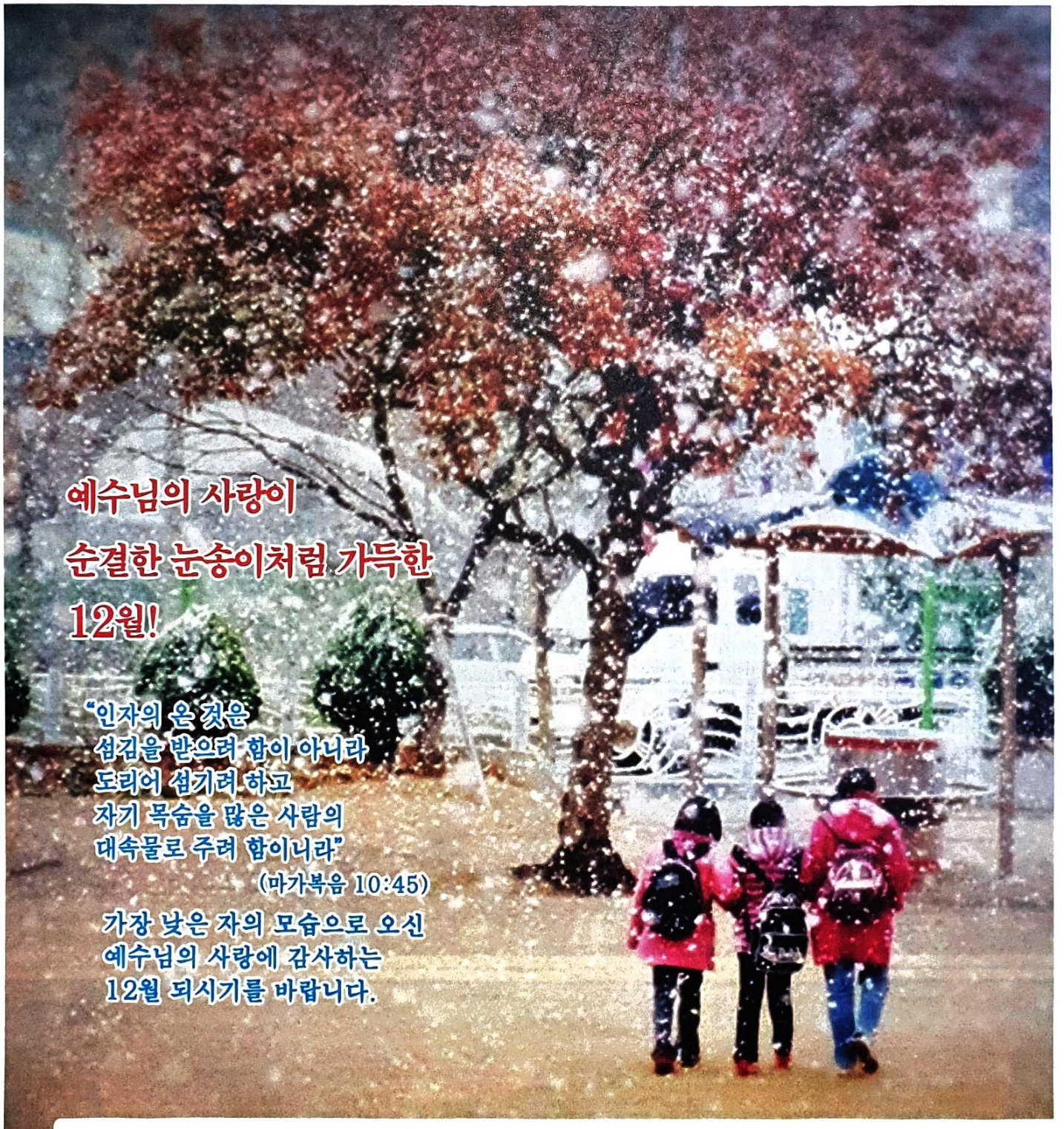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발 행 인 : 한 균

춘천성시신문

성 시 비 전
교회 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 121호 2008년 12월



예수님의 사랑이 순결한 눈송이처럼 가득한 12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12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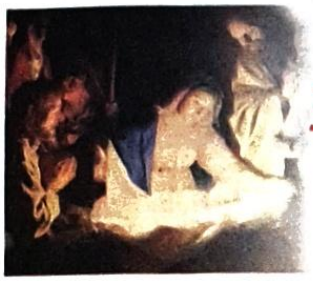
2 교회력으로 보는 성탄절기의 의미
4 성탄절 춘천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6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교회(혈동)
11 행복의 비결



9 | 춘천의 인산, 향로산



13 | 불의 전차



교회력으로 보는 성탄절기의 의미
- 기다림의 절실함, 그리고 미학 -



이 동규 목사
(북산 교회)

성탄절 의미를 알려면 먼저 강림절의 의미를 알아야

교회력에 있어서 새해의 시작은 언제일까? 바로 강림절 기간인 요즘이다.

교회력의 시작은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이어지는 강림절이 한해의 시작이다. 대개 강림절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시작된다. 올해는 11월 30일이 강림절 첫째 주일로 교회력에 있어 새해의 첫 날인 셈이다. 강림절-성탄절-주현절-사순절-부활절-성령강림절로 이어지는 교회력의 순환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섭리를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달력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 하나님의 달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기념하고 다시 체험하는 것이기에, 교회력을 단순히 기독교의 특별한 절기를 모아 놓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먼저 강림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

아기 예수의 나심을 경하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강림절

강림절은 무엇보다 빛의 축제라 할 수 있다. 화관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대개 원형이나 아치형의 화관을 쓴다. 화관 주변으로 네 개의 초를 준비한다. 정해진 초의 색깔은 없으나 강림절 기간의 장식색인 보라색이나 청색 혹은 빨간색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가운데 그리스도의 초로 상징되는 다른 초에 비해 조금 큰 흰색의 초를 장식한다. 강림절의 네 주일 동안 이 네 개의 초를 하나씩 밝힌다. 이 촛불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죽음을 연상하게 한다. 또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 되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한다. 실로 이 강림절기의 주된 관심은 종말론이지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탄절을 성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가 아니다. 강림절은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신 것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표현하는 절기다. 그러므로 강림절에 묵상하거나 선포되어질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과 아울러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표현하는 내용이어야만 한다. 곧 아기 예수의 나심을 경하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기인 것이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각화가 바로 화관과 촛불이다. 이 촛불의 표상을 통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아픈 마음이 전달된다.

크리스마스 트리 또한 이 기간에 장식하게 되는데, 그 근원은 11세기부터 교회에서 공연되었던 신비극(mystery plays)에 두고 있다. 이 연극에서 낙원의 나무에 대한 관습이 있는데, 이 나무는 에덴동산과 생명의 나무를 나타내며 그와 관련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나무를 상징했다고 한다. 또 하나의 근원을 살피면, 예수의 가계도를 나타내는 이새의 나무를 언급할 수 있다(사11:1). 이 나무의 장식 또한 그리스도와 연관된 다윗의 열쇠, 이스라엘의 지팡이 등과 예언자 혹은 다른 인물들과 연관된 노아의 방주, 십계명판, 아브라함의 칼, 야곱의 사다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성탄절은 예수 그리소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성탄절 이브에 시작하여 주현절까지 계속된다. 교회력에서 주현절은 매년 1월 6일이 된다.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당일이 아닌 12일 후인 1월 6일 이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주현절이다. 곧 성탄의 축제 절기는 성탄이브인 12월 24일과 주현절인 1월 6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 되는 것이다.

주현절은 "명백히 드러남"의 의미를 가지며,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명확하게 드러남을 보여주는 절기이다. 주현절이 항상 주일과 겹치는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1월 첫 주일을 주현절 예배로 드리고 예배 후 강림절과 성탄에 관계된 장식들을 정리하게 된다.

강림절은 '목마름을 체험한 이들의 갈증' 과도 같다 할 것이다. 하루가 천년 같은 심정으로 고대하는 기다림의 절정이다. 이 기다림은 종교적 전통이나 해마다 찾아오는 명절로 어떻게 행사를 치를까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아기 예수에 대한 기다림은 그야말로 종말론적 이유가 충분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간절한 기다림은 강림절기에 갖춰야할 믿음의 덕목이고 이 기다림을 촛불과 나무에 형상화 한 미학적 접근은 우리의 태도이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뵈옵고, 빛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기이다. 성탄은 과거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경험해야 할 미래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다.





참고도서) 남호, 「교회력에 따라 예배하기」(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2002) 송병구, 「색동스톨」(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2004)

Tip) **주일 성서일과** (1983년 완성된 3년 주기의 공동 성서일과를 기본으로 하며, 올해 강림절 이전 주일, 11월 23일까지는 B해에, 30일부터는 C해에 해당된다.)

강림절 첫째주일(11월 30일)	
구약 – 예레미야 33:14-16	교독 시편 25:1-10
신약 – 데살로니가전서 3:9-13	누가복음 21:25-36
강림절 둘째주일(12월 7일)	
구약 – 말라기 3:1-4	교독 누가복음 1:68-79
신약 – 빌립보서 1:3-11	누가복음 3:1-6
강림절 셋째주일(12월 14일)	
구약 – 스바냐 3:14-20	교독 이사야 12:2-6
신약 – 빌립보서 4:4-9	요한복음 1:6-8, 19-28
강림절 넷째주일(12월 21일)	
구약 – 미 가 5:2-5a	교독 시편 80:1-7
신약 – 히브리서 10:5-10	누가복음 1:39-55
성탄절(12월 25일) – 모든 해 공통	
구약 – 이사야 52:7-10	교독 시편 98편
신약 – 히브리서 1:1-4(5-12)	요한복음 1:1-14

'미라클 영어(선교)회화 훈련소' (인트로11기)

'정말 획기적으로 쉽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훈련 수료자들의 끊임없는 입소문과 추천이 입증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매일 춘천까지 와서 훈련받은 친구 소개로 알았어요. 춘천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현직 중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조등학생 자기 자녀에게, 동료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적극 추천하는 곳이다.'
'반신반의로 왔던 공개설명회 참석자들이 거의 100% 등록 했습니다!'
'중 고생과 중학 예비생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창치이고 확기체이 미러클식 생해으로 '집중적인 훈련' 을 할 때 균형잡힌 영어로서 문법과 독해는 물론 회화가 됩니다.

미라클 체험수기

"한리이기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명칭에서 춘천으로 이사를 왔어요.이때 중학교에 올라가는 딸의 영어공부 때문에 고민하던 중 미라클훈련을 받은 지인을 통해 미라클을 소개 받게 되었지요.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영어학원과 과외를 했다는데 우리아이는 시골에서 그런 교육을전혀 받지 않아서내심 걱정이 되었어요.이제 2개월만지나면 중학교 입학인데영어준비기 전혀 안되어 있었어요 공개설명을 듣는 중 바로 저 방법이라는 확신이생겼어요.그리고 선택이적중했구요. 학원이나 과외를전혀 받지 않은 아이가미라클 훈련을딱 3개월 받고 나서 영어에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더라구요.미라클식으로 하니 학교영어뿐 아니라 영어가 쉽다는 것을 깨닫 고는 이 방법에대해 더욱 확신하더라구요. 물론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어 시교육은 받지 들었어요. 지금도영어는 교과서의 문장이 아닌 곳에서문제가 나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될 정도로 반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요 영어 때문에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시행착오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곧 바로 훈련을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 남여중 3년 김원민엄마 -

"영어 유치원 때부터영어를 시작하여 영어 과외를 꾸준히한 민지는 영어를어려워했고 "영"이라는 말만 나와도 몸서리칠 정도로 영어를 싫어했는데 이번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영어책만 불러고 해요.그리고 훈련 끝날때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유익한 말씀들을 통해 삶의 모든 자세가 좋아지고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 박민재 본내 초교 6년 엄마 -

"교과서만 겨우 이해할 정도의영어실력이었던 내가 지금 친구와 관련 원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영어실력이 된 것은 중3때 미라클훈련을 통해 영어의근본 원리를습득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 함송 함강원고교 2년,2008년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표창 수상 -

"영어가 너무 재미있어요. 영어를 위해 시험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영어가 너무 쉬웠어요.친구들이 너 영어 어디서 배웠니고 물어 봐요"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참석인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참석만 했는데그 어렵게 느껴지던 문법이너무나 쉽게 정리가 되구 습득이 되구요.대강 단어를 까워 왓추며 독해를 해서 독해를해놓 고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독해를 하고 또한 속도도 2배이상 빨라졌어요. 별도로 집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복습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습득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영화가 들려요" "꿈에서 영어로 꿈을 했어요" "길 가는데 영어가 튀어나와요" "심심해서 매일 왐복5시간 자타고다니면서 훈련 했는데 하루하루가너무 재밌고 의미가 있어서3시간 반이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수준 있는 완력한영어구사 능력은완벽한 문법과 독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 실감이 돼요.문법과 독해 그리고 발음이너무나 정확하게 습득이 돼요.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예비 중학생에게도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요"
-초5년에서50대 주부까지-

"영어를 배우고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그러셨겠지만저 역시 학원을 참많이 다녀봤습니다.그게 대학 때부터니까 꽤 오랜 영어의 늪에 빠져 있었네요.공개 설명회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마설마 했었 습니다. '대강 힌계층의 훈련생을 데리고어떻게 강의를 하시려나' 하지만 훈련을 하는 날이 하루하루 지나고 영어 교제가 한장 한장 넘어갈때마다 선택에 감사드렸습니다. 초등학생부터나이 지긋하신 어른 훈련생모두가 만족할만한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거짓말 같이 들리겠지만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그 어렵던 문법도 아주 쉽게 이해가되었습니다.또 배운 문법이 완전히습득이 되어서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며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생기더라구요. 놀랍지만 정말이랍니다.간단한 예문도몇 번을 반복해야 외우던 지의 수준으로서는상상도 못할 많이 발어지고 있는 것이죠.정말 미라클훈련은 정말 미라클(기적)입니다.긴 문장도 만만해 보이고,훈련 하다 보니 어느새 종이신네 말음에 제기 가특해지고, 일생생활 속의 일을 영어로 말해 보는 습관이 생기고,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군요.영어는 어려운학문이 아닌 영어라는 당연한사실을확실히 깨닫게해준 고마운 사간이었습니다." - 기본훈련 단계 까지 수료생이 미국에서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랑 듬뿍, 줄 잇는 아름다운 나눔의 손길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가 없다"는 여론이 팽배한 게 현실이다. 작은 배려, 예를 들어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잘 들어준 것에 대해서도, 무엇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를 생활화해야 한다. 감사의 생활화는 성경적 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칠 때만 실천할 수 있다. 성경적 감사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삶이야말로 감사를 실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추운겨울이 시작되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성육신의 절기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가온다. 여기 한국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의 이웃사랑과 아름다운 나눔 행사가 풍성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웃을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일에 함께 동참해보면 어떨까?

작은사랑 아름다운세상 춘천연탄은행 (Small Love Wonderful World)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연탄 한 장에 담긴 작은 사랑을 모아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춘천연탄은행을 개원한지 5년이 되었다. 지난 5년 동안 역경과 눈물과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냉대도 있었지만 연 인원 2,000명이 넘는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춘천지역 에너지 빈곤층 600가정에 사랑의 연탄 50만장을 전달하였다. 연탄뿐 아니라 반찬은행을 통해 독거 할아버지 60가정에 매주 1-2회 반찬을 지원하고 매년 김장은행을 통해 300여 가정에게 김장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연탄지원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차상 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30만장의 연탄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매년 성탄절에는 어려운 어르신 40여분을 초청하여 위로의 잔치와 함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따뜻한 성탄절〉 행사를 갖는다. 연탄은 더럽고 지저분하지만 묘한 행복바이러스가 있어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연탄은 타고 나면 하얀 재만 남지만 따뜻한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 춘천연탄은행(☎251-7141) -

사랑의 온차로 장병들 마음 녹여...



사랑의 온차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에 전·후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초소 근무자들에게 군종목사 및 군종병과 신우형제들이 순회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도해주면서 간접적으로 전도의 효과를 얻는 겨울철 군선교의 중요한 활동이다. 군선교강원지회(지회장:원기배목사)는 11월 27일(목) 오전11시 광장감리교회에서 사랑의 온차 전달 감사예배 및 전달식을 가졌다. 원기배목사는 "서로 사랑하자"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장병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며,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자"고 말했다. 이날 군선교강원지회는 7사단, 15사단, 27사단, 2군단 등에 144박스의 사랑의 온차를 전달하였다. 장병들에게 더 많은 사랑의 온차가 보내지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

- 군선교 강원지회(☎254-1379)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나누는 가족잔치



빈곤층 가정의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나서 돕자는 한국형 빈곤아동 지원프로그램, "We"에는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는 호소와 함께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두 축이 핵심 영역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기 위한 운동으로 태아부터 아동까지 연령별로 과학적인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선진 복지 프로그램이다.

올 7월 효자종합사회복지관이 위스타트운동본부로부터 위탁받아 '위스타트 춘천마을 운영센터(효자동444-10)'를 개소하여 효자1,2,3동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위스타트 춘천마을에 등록된 모든 가정을 초청하여 12월 23일 오후 5시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가족잔치를 벌인다. 이 행사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 간의 친밀감을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 위스타트 춘천마을의 사업계획을 함께 나누며 가정, 특히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위스타트 춘천마을 운영센터(☎263-2850~1) -

"꿈과 희망을 전하는 꿈나무 지킴이" - 실버동화구연가양성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대와 고급 유휴인력의 증대는 자아계발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평생교육차원에서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춘천YMCA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버동화구연가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여가문화 활동 및 전문적인 지도력을 갖춘 교육과정을 거쳐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40시간의 이론교육을 실시한 후 실습 및 연수기간을 거쳐 소외계층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할머니가 들려주는 동화 속 이야기' 봉사활동을 통해 손자손녀들과 함께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연말연시 할머니들의 재미난 동화이야기와 사랑으로 외로운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다.

- 춘천YMCA(☎255-1001) -

"아름다운 동행"



어린이재단 춘천복지관은 2008년 한 해 동안 관심과 사랑으로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하여 12월 9일 오전 10시30분 강원웨딩문화센터에서 감사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고, 우수봉사자 표창과 레크리에이션, 만찬 등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11일에는 해인정에서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한 회원들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어울려 한해를 돌아보는 송년회의 자리를 마련한다.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격려 받는 시간일 될 것이다.

- 어린이재단 춘천복지관(☎242-0051~3) -

'미라클 영어(선교)회화 훈련소' (인트로11기)

1. 개강일시 : 2009년 1월 5일(월) 오후 6시30분(시간엄수)
2. 기 간 : 1월 5일(월) ~ 2월 3일(화) 매주월화목금 6:40 ~ 10:10PM
   1일 3시간 30분씩 1개월(16일간 총 56시간) 학습 및 훈련
3. 훈련단계및 교재 : 인트로단계 11기 교재 : Interchange Intro -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
4. 장 소 : '꿈이있는교회 (교통편 : 카톨 22번버스)
5. 본훈련소는
   ① 초5,6년,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등 누구나 참여만 하면 영어컴플렉스 완전해방!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② 영어회화를 공부하다가 더이상 실력이 늘지 않거나,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 강사보다 훈련생이 더 말을 많이 하게 한다.
   ③ 영어(회화)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최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으신 분.
   ④ 출국이 임박한 분, 선교지로 파송될 분, 해외어학연수 유학가기 전에 미리 반드시 거쳐야 할 곳.
   ⑤ 방학 때는 경험자들의 입소문을 듣고 타 지역(서울, 부산, 성남, 평택 등)에서도 춘천에 원정 와서 훈련 받는 곳.
   ⑥ 영어의 근본 핵심을 통해서 훈련시키므로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실력 전반(리스닝, 발음, 문법, 독해등)에 대해 완벽히 핵심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예비중학생이나 영어에 자신감을 잃은 중고생 자녀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6. 훈련등록마감 : 12월 24일(수)까지 선착순 마감(조기마감을 주의 하세요) ☎ 264-0691, 010-3510-0691, 010-4917-0068)
7. 공개 설명회 및 체험사례발표 : 1회(1월 22일(목)) / 2회(12월 13일(토)) / 3회(12월 20일(토)) 오후 5시 ~ 6시30분, 소시간엄수 요망
   ※ 훈련생 자격 : ① 기독교 신앙인 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열린 마음의 소유자. ② 본 훈련원 수료자의 추천을 받은 자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3회의 공개설명회 중 1회를 참석한 자. (예외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눈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열렸습니다." (미라클 체험수기)

저는 "4개월만 하면 영어가 술술 나온다"라며 말씀하시는 이혜의 권유로 미라클 영어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어가 술술 ~~!' 이것은 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10년 이상 영어공부를 해도 이수준인데 4개월 만에 가능할까 '의심이 생겼지만 결국 공개설명회를 참석하고 체험자들의 체험담과 영어훈련에 대한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겨우 훈련에 참가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훈련한 지 며칠이 지나서 느낌이 오기 시작하더니 2개월 만에 '아 미라클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본격적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백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높고 큰 탑을 완성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백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탑을 쌓는 쉽고 빠른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을 비롯으로 자신이 스스로 응용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모한 백돌들을 체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무작위의 백돌들만 주고 '탑은 본인이알아서 쌓는 것입니다' 하고 마는 기존 영어교육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백돌 들자면 저는 어학연수를 위해 휴학을 했습니다. 어학연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국내에서 영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오전에 입주과외 두번 입대일 영어과외를 받았고 지녁에는 미라클 영어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바쁘기 되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후주에서 7년 계셨던 분이라 영어실력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제게 회화 문장 전체와 뜻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사용해야 문장을 달달 외우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문장을 제어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으로 등등시켜 내가 하고 싶은 다른 문장을 만드는 것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어의 근본적인 원리를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셔서 문장을 이용이 내 사기 때문에 이해한 하면 문장을 힘들게 외울 필요가 없이 스스로 말하듯지 응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참중하게 들기만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저절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실제로 상당수의 5,6학년 분 고경험도 함께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다 바뀐 눈을 내며 영어과외를 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효과가 있는 미라클 훈련을 전적으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후보자분 보여 설이 절이 하단 것이 정말 체계도 잘어났습니다. 중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외국인과 대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돌아서 가족까지 사용도 해 보았습니다. 한때 영문 외국인이 있는데 미라클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내게 '내가 한보다들은 다 내의 말을 잘 이해 할 수 있다. 영어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쉽게 영어의 원리를 방아 풀려 주시는데 참석 기초인 여러분들 저도 세우는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참석만 하면 4개월 후면 영어는 걱고한 말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Miracle이기 때문입니다.

- 고우리강대 영어영문과 1년 휴학중 -

'영어(회화)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최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으신 분.'

1월 5일(월) 오후 6:40 ~ 10:10PM
1월 3시간 30분씩 1개월(16일간 총 56시간) 학습 및 훈련

초5,6년,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등 누구나 참여만 하면 영어컴플렉스 완전해방!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영어회화를 공부하다가 더이상 실력이 늘지 않거나,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 강사보다 훈련생이 더 말을 많이 하게 한다.
영어(회화)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최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으신 분.
출국이 임박한 분, 선교지로 파송될 분, 해외어학연수 유학가기 전에 미리 반드시 거쳐야 할 곳.
방학 때는 경험자들의 입소문을 듣고 타 지역(서울, 부산, 성남, 평택 등)에서도 춘천에 원정 와서 훈련 받는 곳.
영어의 근본 핵심을 통해서 훈련시키므로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실력 전반(리스닝, 발음, 문법, 독해등)에 대해 완벽히 핵심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예비중학생이나 영어에 자신감을 잃은 중고생 자녀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 위한 생활 Zone 영어
미라클 영어특별무료
1월 5일(월) 오후 6:40 ~ 9:00 (2:30)

성탄절 춘천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 나눔
- 성탄절 거리만들기 축제 -

성탄절의 회복과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 축제

거룩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의 축제로써 일반시민들은 복음이나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축제를 보내고 있다. 오히려 상업적 대목으로 연말연시와 함께 이를 통해 유흥문화로 타락하는 통로가 되는 등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축제로 변질되어 왔다.



이에 춘천기독교연합회는 '성탄절 회복운동'으로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춘천의 상징인 명동과 지하상가에서 바른 문화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를 기획하였다. 성탄의 메시지를 바로 전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작은 음악회'를 열고, 희망 나눔을 위한 '사랑의 쌀'을 모집하여 불우이웃과 고통당하는 북강원결핵어린이돕기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지하상가 번영회, 명동 번영회와 함께 '성탄 거리 가꾸기'를 실행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춘천의 문화단체 및 교회의 찬양단이 함께 문화 공연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는 점점 텅 비어져 가는 기존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이웃돕기와 시장의 서비스 개선의 좋을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교회들은 성탄절의 의미회복과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 나누기, 그리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성탄의 축제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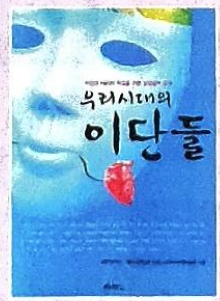
성탄절 희망 나눔 행사 내용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이 협조해야 할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1. **성탄을 축하하는 트리 점등식** : 12월 7일 오후 5시 중앙로 기업은행 앞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트리 점등예배를 드린다.
2. **지하상가와 명동에 성탄 거리 만들기 운동** : 12월 7일부터 24일 저녁까지 지하상가와 명동번영회와 함께 성탄거리만들기 운동을 펼쳐 성탄의 바른 의미를 전달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탄절 캐롤송과 문화 공연을 펼친다.
3. **사랑과 희망의 쌀을 나누기(희망나눔센타)** : 교회에서는 성미를 모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상인들과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특히 보내주는 사랑의 쌀은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전량 활용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여 보내준 이웃 사연 알리기와 각 교회나 단체에서 지정하는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또한 북강원결핵어린이 돕기운동도 병행하여 홍보하고 시민들이 참여토록 한다.
4. **성탄의 주역 나눔과 백일장 및 성탄트리경연대회**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보내오면 희망의 쌀을 나누며, 성탄을 주제로 한 감동적인 시, 수필, 간증문 경연대회 및 가정과 기관에서 만든 아름다운 성탄 트리 경연대회를 벌이는 등 시민 축제 마당을 펼친다. 12월 7일부터 명동과 지하상가에서는 성탄트리에 소망과 사연을 적어 걸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이번 성탄절 축제를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하고 믿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성탄절 기획팀]

우리 시대의 이단들 - 이단, 예방이 최선! 척을 알아야 넘어가지 않는다



오늘날 이단들은 교회 안까지 침투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극성스러운 활동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으로 훈련할 목적을 갖고 대전기독교연합회에서 이단과 사이비 척결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인 《우리 시대의 이단들》이란 책을 출판하였다.

이단과 사이비 척결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

이 교재는 '이단이란 무엇인가?' 라는 개괄적인 설명과 더불어 6과에 걸쳐서 성경공부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 전체, 혹은 구역 모임, 청년 대학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교재 구성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이단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정의와 확인 방법을 담고 있다. 2장은 이단에 대해서 6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2장을 중심으로 한 과씩 공부를 하면 된다. 3장은 한국에서 중요 활동하는 이단들에 대해 잘 정리하였으며, 4장은 이단의 교회 침투 방법과 피해 사례들을 실어 놓아 이단 피해의 상황들을 통해 그 피해의 심각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5장에서는 이단·사이비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 6장은 이용 가능한 주요 사이트와 도서들을 싣고 있다.

우리시대의 이단들 효과적 활용법

이 책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첫째**, 목회자가 전체적으로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을 이용해서 2장에 있는 내용을 6주에 걸쳐서 한 과씩 공부하면서 직접 강의하는 방법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책 구입을 독려하면서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돕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목회자들이 이 책을 갖고 이단에 대해서 성도들과 직접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 강의할 때에 목회자는 파워포인트(파워포인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공해 드림)를 이용해서 성경 공부를 하듯이 한 문제씩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면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목회자가 직접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 총론은 목회자가 담당을 하고 나머지 여섯 과의 성경공부는 소그룹을 통해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때 담당 목회자가 먼저 소그룹의 리더들과 충분히 공부를 하고, 소그룹 인도자들이 그룹원들과 공부하게 하는 것이다. 이 교재에는 이단에 대해서 참고로 할 수 있는 보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세 번째, 6~7주 정도의 성경공부 중에 한번 정도는 이단 전문가를 초청해서 집회를 가지면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다. 또한 이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도 많다. 그러니 반드시 한번쯤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통해 막연히 가졌던 의문점들을 풀어나가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단은 예방이 최상의 방법이다. 만약 이단의 피해가 있은 후에 처방을 하려면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하며,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각 교회들이 이단의 피해를 줄이고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란다.

[편집부]

크리스천 기타 교실

통기타 대중시대(동사무소 등에서 교육), 쉽게 배웁시다

A코스 (이중오 선생) : 초급반, 중급반(찬송가 집중) T.264-2900
※ 장소 : 뉴랜드알로에(호 산부인과 옆)
※ 시간 : 매주 화, 오후 6시-8시
※ 찬송가 동요 가곡 건전가요 - 합창 좋아 하시 분들 환영

B코스 (신선우 선생) : 초급반, 중급반 - 찬송가곡만 교육
※ 장소 : 광성감리교회
※ 시간 : 매주 목, 오후 4시-6시
※ 제이릭 협력
※ 영성회복 치유음악 CCM

■ 운 영 : 3개월 코스(SI/Ar) 월 1만원 - 3만원 현금/후원금으로 실경비 조달
■ 정 원 : 10-15명
■ 개 강 : 09. 1. 6(화), 09. 1. 8(목)
■ 접수처 : 육림악기사 (T.252-5041)
■ 자 격 : 30세 이상 춘천시민(남이)
■ 수강신청기간 : 12월 10일부터
■ 문 의 : 010-6654-8280

춘천 뉴랜드 음악선교원

인 사 말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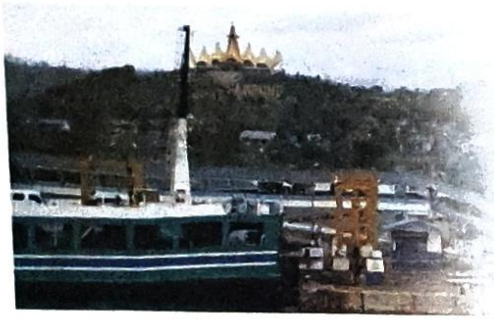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저는 2, 3년간 동사무소 등에서 기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를 집중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고, 함께 가요를 부르면서 기타를 배우고 있을 때 마음의 갈등이 심해 몇 번 기타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기타교실을 개설해, 제멋불구 몇 개월 다녔지만 이것 또한 편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부담 없이 쉽게 기타를 배울 수 없을까, 오랫동안 고민과 기도 중 크리스천 기타교실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를 치면 손가락 지압운동과 두뇌사용으로 건강과정서함양에 좋으며 격조 높은 삶으로 변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08년 12월
김 진 규 목사(전 CBS춘천방송 본부장)



선교의 최전방, 수마트라 람뿡을 다녀와서


이슬람사원


기도전 세족모습

세계 최다의 이슬람교도들이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면적은 192만 2570km(2), 인구는 2억 2천 260만명(2004년)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다. 정식명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Indonesia)으로, 18,000여개의 섬으로(유인도는 3천개정도)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島嶼)국가(섬나라)이다. 약 700여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종족, 다언어, 다문화 국가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 국가의 정신이다. 언어 수는 583개, 이중 17개 언어만 사용인구 백만이 넘을 뿐 238개는 이리안자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종교는 국민의 약 80%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단일국가로는 세계 최다의 이슬람교도들이 있는 나라), 기독교 9.7%, 로마카톨릭 3.2%, 힌두교 3.1%, 불교와 중국종교들 1.22%, 무종교 1.4%, 이단종파 0.1%정도이다. 포르투갈(1511-1605), 네덜란드(1605-1942, 1945-9), 영국(1807-1815), 일본(1942-45)의 식민지였다가 1945년 8월 17일에 독립했다. 1965년 미성숙한 공산주의 구데타 후에 수하르토 장군에 의해 퇴각되기 전까지 인기를 누렸던 수카르노 대통령은 22년을 통치하였다. 1999년 동티모르가 독립하였다.

남풍이 불어오는 큰 섬, 수마트라 람뿡(Lampung)

수마트라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서쪽에 있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으로 면적은 남북한을 합친 것의 2.2배이다. 인구는 4천 8백만 명이다. 누운 고구마 모양의 섬으로, 최북단 아째 주로부터 최남단의 람뿡 주까지 모두 9개의 주(州)로 이루어져 있다. 수마트라의 종교는 이슬람교가 95%로, 북부 수마트라(바탁족)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기독교율은 매우 낮다. 선교학자 랄프 윈터(Ralph Winter)에 의하면 수마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며, 영적인 싸움이 많은 지역이다. 람뿡은 수마트라 최남단에 있는 주(州)로, 교통의 요충지이자 수마트라로 들어가는 대문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람뿡의 지명은 '남풍(南風)'에서 유래했으며, '남쪽 바람이 부는 땅'이라는 뜻이다. 토착민인 람뿡족은 5개의 작은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페쇄적이며 교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 람뿡은 가난한 주로, 치안이 불안하여 강·절도 사건이 빈발하며 살인사건도 많이 발생한다.


교 졸업생들을 축복하며

인함하여 이루어가는 선교, 최달수 선교사를 파송하다.


최달수 · 봉하심 선교사

최달수(봉하심,요한, 요셉,요엘) 선교사는 강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1회로 졸업하고 잠시 강원일보 수습기자로 활동하다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아내 봉하심 선교사는 춘천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교사로 사역하다가 순종하였다. 최달수 선교사는 미전도종족인 람뿡족 선교를 위해 기도하던 중, 선교는 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적 사명에 동참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러한 최달수 선교사의 뜻에 공감한 춘천지역에 3교회-봄내교회(김승권 목사), 조양교회(전효진 목사), 늘사랑교회(정재호 목사)가 함께 연합하여 공동으로 선교사를 파송(2000년)하게 된다. 후에 로뎀교회(박수권 목사)가 선교사역에 동참하여 파송교회로서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였다. 최달수 선교사는 지금까지 8여년 동안 수마트라 람뿡지역에 거주하면서 현지교회와 협력하여 〈람뿡성경신학교〉 사역을 진행(1년과정, 8기 수료)하여 평신도지도자들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양육하였다. 또한 신학교 강의 사역을 통하여 현지교회를 섬길 성숙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협력하였고, 농촌지역의 교회와 예배당건축사역을 감당해 왔다.

그러던 중 강원노회(예장합신) 영서시찰회에서는 파송교회를 중심으로 최달수 선교사의 사역지를 돌아보고 선교보고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파송교회 목회자인 박수권(로뎀), 전효진(조양), 정재호(늘사랑) 목사가 2008년 10월말에서 11월 초 열흘동안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배를 타고 산을 넘어 전해지는 복음,

선교비전과 기도제목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수마트라 람뿡의 주도인 반다르 람뿡까지는 8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자카르타에서 항구까지 2시간, 수마트라 섬까지 배를 타고 3시간, 항구에서 선교지까지 이동하는데 또 3시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차를 타고 산을 넘어가면서 괴곤한 몸을 의자에 기대는데 문득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한 말씀이 떠올랐다. 사도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발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발걸음이겠는가!! 8년 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세운 람뿡성경신학교 수료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이슬람교인들이 85%가 넘는 사회에서 핍박과 박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예배와 섬김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현지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은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춘선포, 박수권


현지교회 목회

농촌지역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회자가정을 방문하여 교제하던 중, 꿈에 예수님을 만나 개종한 사람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 최달수 선교사와 한때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청년부를 함께 섬기던 박상준 선교사(언어훈련중)도 만나 교제하며 격려하였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나보다. 춘천에서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과 우정이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도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였다.

수마트라는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은 지역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다. 수마트라는 52개 미전도 종족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고향이고, 이중 48개 종족은 토착민 교회가 없으며, 이들 가운데 34개 종족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일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1년 내내 무더위 속에 시달리며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최달수 선교사와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절한 기도를 거듭 부탁드린다.

[춘천늘사랑교회 정 재 호 목사]



2009학년도 자연유치원 신입생 모집 안내

가 입학안내
1) 입학연령 : 2003. 3. 1 생부터 2006. 2. 28 생까지
2) 구비서류 : 본원 입학원서 1통, 입학금. 3월분 교육비, 반명함판 사진 3장.
3) 방문상담접수 : 오후 4:30 ~ 6:00까지
4) 참고 : 본원은 저소득교육비지원비를 받는 기관입니다.

나 본원 특강교육
본원은 타원과 달리 담임선생님은 유아교육과정만 가르치시며, 특강과목은 그 분야 최고의 강사분이 가르치십니다.

1) 순수크레파스화 (매년 전국아동미술대회 참가 - 출품료, 상패, 트로피, 메달 등 본원에서 전체부담)
2) 수채화/일러스트
3) 영어특강(원어민)
4) 음악/리코더
5) 체육/태권도
6) 음악줄넘기
7) 웅변/마술
8) 과학/수학
9) 버그토이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41-5511 www.cyworld.com/jysince93



춘천성시화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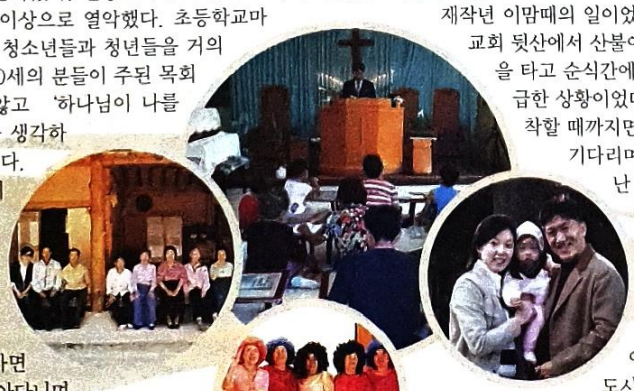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교회

혈동감리교회는 지난 1946년, 춘천 혈동리에서 어종옥 권사(작사교회 이학규 장로의 모친)의 가정에서 가정 교회 형태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62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혈동교회는 도시 교회의 못자리판으로서 자식들을 성장시켜 출가시키는 고향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왔다. 일곱 50~60명을 헤아리던 초등학교는 이농 현상으로 분교를 거쳐 폐교에 이를 정도로 모든 교회의 내외 환경은 악화되었지만 최성철 목사와 정아롬 사모의 부임 이래 더욱 주님의 향기와 빛을 발하고 있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혈동교회(최성철 목사)편입니다

최성철 목사와 혈동교회

최 목사는 신실한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특별한 굴곡이나 갈등 없이 순탄한 신앙생활을 거쳐 목회자가 되었다. 최 목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회고한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아현교회에서 청년 목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주님은 뜻밖에도 청소년 목회나 청년 목회가 아닌 전혀 다른 길로 최 목사를 인도하신다. 최 목사가 부임할 혈동교회는 강원도 오지로서 청년들이 전혀 없는 실버 목회지였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부임 전에 알고 최 목사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고민도 잠시뿐. 주님이 혈동교회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주저 없이 부임하였다. 혈동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 목회환경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열악했다. 초등학교마저도 이미 오래전 폐교가 된 마을에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60세 후반에서 80세의 분들이 주된 목회의 대상이었다. 최 목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를 생각하며 그 깊으신 뜻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주님의 분명한 음성은 들을 수 없었지만 최 목사는 확신을 가진 다음 날부터 의욕을 가지고 선교 전략을 세웠다. 동네 주민들이 교회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이다.

최 목사는 밭농사면 밭농사, 논농사면 논농사, 주민들의 가정 대소사까지 찾아다니며 자식 이상으로 열심히 일해 주며 교제를 나누었다. 이것을 통해 마을 주민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가오기 시작했다. 최 목사를 마을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해 주었으며, 교회를 마을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주었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동네에서는 최 목사의 일손이 필요한 가정이 너무나 많았고, 밤낮으로 그들을 돕다 보니 탈진현상과 아울러 말씀준비와 기도생활이 소홀해지는 것을 최 목사 자신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몇 년 전 부터는 기도와 말씀, 심방 등 목양중심의 사역으로 전환하였는데 그 이후에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 도시 교회에 비하면 많은 수라 할 수는 없지만 부임 초기의 예배인원보다는 몇 배의 수적 성장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문지방 사역

혈동리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다. 주소상은 춘천지역에 속해있지만 6·25전쟁도 피해갈 정도로 깊은 오지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까닭에 도시 교회와는 달리 전도지를 돌리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깊이 있는 성경공부를 통해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도 없다. 그래서 최 목사 나름대로 이름붙인 복음사역은 '문지방 사역' 이다. 문지방 사역이란 말 그대로 집집마다 방문하여 문지방을 넘나들면서 관계중심전도를 하는 것이다. 최 목사는 신자의 가정과 불신자의 가정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문지방을 넘나들면서 '주님, 이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다닌다고 한다. 최 목사가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하였지만 여전히 마을 주민과 가까이 하려고 애써 노력한다.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들과 특히 불편한 교통으로 인해 재활치료를 포기하는 일반 주민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회 차량을 운행하여 깊이 있는 치료를 돕고 있다. 아울러 도시 교회와 협력하여 의료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회 내에 도시교회들과 연계하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철기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꿈과 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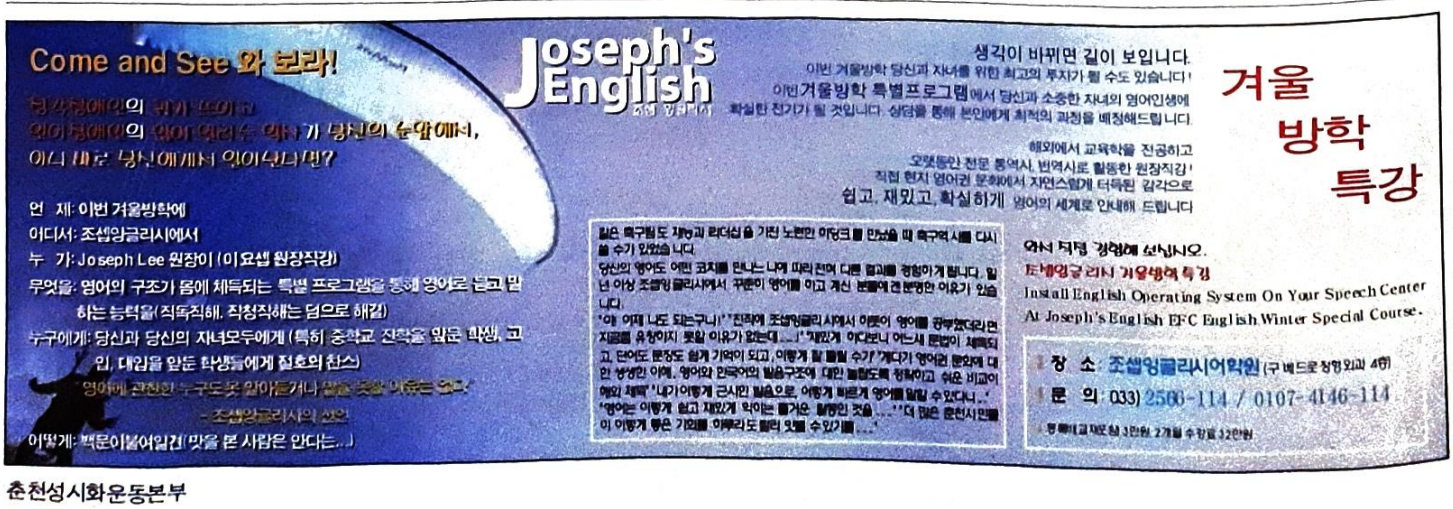
재작년 이맘때의 일이었다. 시내에 불일이 있어서 최 목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교회 뒷산에서 산불이 난 적이 있었다. 쓰레기 소각로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산으로 번져 온 마을 전체가 화마에 휩싸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은 춘천 소방서에서 당장 출동한다 해도 도착할 때까지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119소방대원들을 기다리며 사모만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차에 어디선가 나타난 6-7명의 낯선 사람들이 산불을 초기에 진압함으로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최 목사는 그분들이야 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아니었겠는가 회상한다.

최 목사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다. 그것은 성령의 불이 혈동리와 춘천, 더 나아가 이 민족 교회 가운데 붙는 꿈이다. 농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이다. 농촌의 아들과 딸들이 교육과 취업문제로 도시로 도시로 나갔지만 농촌에도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 주님 앞에 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기를 소망해 본다. 해외선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시골 한 구석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들의 선한 부모님들을 향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농촌 교회를 살려내야 한다. 최 목사는 요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고 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13:1).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중요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 많은 목사' 가 되기를 무엇보다 원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양떼들을 위하여 몸을 버리셨기에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자신도 걷기를 원한다는 최성철 목사와 정아롬 사모, 그리고 고령임에도 친히 몸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이형구 장로(70)와 혈동교회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향기 있게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 영혼의 양식

항상 기뻐하는 삶,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서 규 환 목사
(평성성결교회)

원래 약간 우울질형의 인간인 저는 주님께서 항상 우울해라, 항상 슬퍼하라, 항상 눈물 흘리라고 하시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찬양 드립니다.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잠 29:6)

솔로몬은 의인의 특징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기뻐하는 성도는 자신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합니다.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음을 아십니다. 늘 시무룩하고 우울하며 어두운 얼굴을 가진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불행하게 만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느낌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 3:17)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서로 혼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쉬지 말고 감사하라, 혹은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도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함께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항상 생기발랄한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천국의 모델들입니다. 경건의 표지가 항상 우울하고 슬픈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울과 슬픔은 죄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십니다.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그 생수의 근원에 연결되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베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요 7:38)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오물입니다. 기독교는 인내와 노고의 종교가 아닌 생명과 성령의 종교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복잡함은 재앙입니다. 단순한 기도의 실천만이 생수의 근원에 여러분을 연결시켜 줍니다. 다니엘은 왜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것이 계명도 아니건만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삼십일 후부터 기도하기로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 없이는 성도의 삶이 불가능한 것을 그는 알았기에 기도를 계속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에 연결됨으로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맺게 되는 열매는 사랑이며 그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사랑과 희락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 사색의 창

춘천성시화와 기독교인의 자정능력



김 영 명 장로
(성시본부 사무처장, 동신교회)

한 도시를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같이 다스려지게 변화시켜 나가는 일 -구원사역의 모델도시- "춘천성시화운동"을 시작한지 36년이 되는 올해도 마지막 12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1996년 9월 12일 "춘천성시화운동본부"라는 틀을 갖추고 뜻있는 분들과 교회가 연합하여 이 사역을 펼쳐 온지도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춘천에서 시작한 이 성시화운동이 전국적으로 45개 지역도시와 미국, 일본 등 국외 13개 도시로 크게 번져가고 있는 것은, 시작에 비해 너무도 엄청난 변화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크게 자랑하고 싶다.

이제 "춘천성시화운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역으로 시정과 함께, 시민의 삶 속에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춘천성시화운동이 기독교인과 교회의 잔치였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무너뜨리고 온 시민과 하나 되는 시민사랑운동으로, 시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운동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을 계속하여 이루어가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파워로 온전히 무장하여 스스로와 가정, 교회와 일터,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성시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의 참사랑이 신자와 불신자의 벽을 넘나들며 허물게 되고, 순수한 시민들에게 접근하여 가정 파괴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파탄시키려는 이단 세력을 근절시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의 생활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편리하게 여기고 쉽게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의 본질 중 하나는 분명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의 재물이 되는 삶일 것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며 허물의 크고 적음도 다 나의 탓으로 여기는 자세 곧, 죽어지는 것이다. 썩어져 죽어지므로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밀알의 교훈을 삶에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정능력의 극치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인간구원 뿐만 아니라 오염된 지구환경의 회복 등 총체적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춘천성시화운동은 우리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신 "영혼구원"의 대 사명 -선교의 사명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성시화"의 꿈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도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기독교인,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버금가는 자정능력을 갖추고, 그 결과 시민들이 만족하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가장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하고 우리를 자랑으로 삼는 그날까지 춘천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바로 전하는 자정능력을 갖추는 사역을 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춘천성시화 사역계획들이 세워지고 실천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기사투고) T.255-1260~1 F. 033)257-1260

2008
원아모집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주인인 곳
매일 예배하는 곳
예배가 충만한 곳...
말씀이 넘치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

유치부
모집대상 ▶ 4세 ~ 7세,
교육내용 ▶ 단계별 한글, 수학, 영어, 음악(리코더), 한자, 과학, 미술, 유아체육
〈오후특별활동 : 피아노, 논술 〉
원서교부 및 등록 ▶ 2008년 12월부터 수시모집

초등부 공부방
대상 및 과목 ▶ 초등학생 전 학년 전 과목 중심 (필요한 과목 집중지도, 시험기간 특별지도)
시 간 ▶ 오후 3시 이후 (상담 후 시간 결정)



꿈과 비전을 가진 진정한 리더를 세우는 베드로 어린이 선교원
입학 및 교육상담 257-5141 (베드로선교센터 4층, 효자2동 봄내병원 내)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외로운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자

믿음의 기업 경동보일러 정 태 철 장로(신촌교회)편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자가 되었다.

정태철 장로가 섬기고 있는 신촌장로교회(춘천 신촌리)의 개척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천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와 마을이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마을이 시작되면서 춘천시내의 모교회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가 개척되었다. 정태철 장로는 신촌교회가 모교회인 자매 곧 아내와 만나 결혼하면서 신촌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다. 결혼하여 춘천에 내려오기 전에 정태철 장로는 통일교 신도였다. 친형이 통일교 창설 회원이었기에 자연스럽게 통일교에 다녔던 것이다. 신촌교회에 등록하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가족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 정 장로는 어려웠던 그 시기를 회고하면서 통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내의 간절한 기도와 격려 때문이었다고 고백한다.

복음전도자로 많은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후6:9-10절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고백하고 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고향과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 그는 정말 외로운 자로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과도 같이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따뜻하게 하는 자로 살고 있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마19:29; 고후6:9-10).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강건하게 하신 것처럼(딤후4:17-18), 정 장로는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딤후2:1) 이길 수 있었다.

훈련과 순종으로 걸어가는 섬김과 헌신의 삶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하고 연단하셨다. 순종하여 가나안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셨다. 예수님께서 도시 각처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자로서 승리하는 일군이 되도록(눅10:1) 하셨다.

신촌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겨야만 했던 정 장로의 삶도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물질문제로, 때로는 교회를 섬기는 문제로, 때로는 목회자를 청빙하는 문제로 하나님은 훈련하셨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 고민하다가 밤새 기도하기도 하였다.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이며,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다. 특히 장로는 교회 내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장로가 어떻게 하느냐가 성도들에게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는 사실은 깨닫기에도 두려운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고 정 장로는 모든 일에 조심하게 되었고, 신중하게 처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모든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먼저 목회자가 엎드려지고, 장로가 엎드려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쓴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께 훈련받은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언젠가 선배 집사가 연초에 연합으로 하는 제직세미나에 같이 가자고 권면했는데, 겨울이다 보니 보일러를 설치하는 일이 많아 바빠서 가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야고보 사도는 인생의 연약함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일 년을 지내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말하는 너희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며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약4:13-17) 이날 이후 정 장로는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이후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힘써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직한 기업가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꿈

정 장로는 기업을 경영하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사업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기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경영하면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평소 정 장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때로 사업관계로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기본적인 예절과 매너에 있어서 불신자보다도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 질 때가 있다. 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단다.

이러한 정 장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업이 경영과 경제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역시 윤리다.' 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마음속에 다가온다. 정 장로에게 장로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로서 한 가지 꿈이 있다. 그것은 교회에서 섬기는 장로로서 주어진 사명을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또한 정직한 기업가로서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나눔을 실천하는 부요한 기업을 일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의 능력과 축복이 정 장로가 섬기는 교회와 사업장, 그리고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진행 정재호, 취재 이영규, 사진 김미경]

"어린이 마음마다 하나님 사랑 가득"
※ 정부 평가인증 기관
C.C.C. 어린이집 원아모집



♣ 만1세~만5세 연령별 선착순 모집
♣ 저소득층 자녀, 목회자 자녀, 형제 감면 혜택
♣ 정규반(오후2시30분까지), 종일반(오후7시까지)
♣ 특기교육 : 영어(매일교육) · 수학 · 가베 · 과학 · 유아논술 · 유아체육 · 자유선택활동지도
♣ EQ발달을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 · 유태식해 마교육
♣ 자연학습장 운영, 실내외 놀이터, 넓고 쾌적한 환경
♣ 어린이 눈높이의 신앙교육(주1회 어린이예배)

※ 신앙과영성의 표준인 성경말씀의 교훈을 따라 기도의 어머니처럼 전문적인 전인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문의: 033)255-5776, 010-9533-5776
◆ 위치: 춘천시 후평2동 C.C.C.아카데미하우스 내(한신아파트 옆)

춘천 효신대안학교 학생모집

효신상업전수학교, 효신고등공민학교의 중등교육 역사를 갖춘 효신선교회가 탈학교 청소년을 위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안교육을 제공합니다.

♠ 대 상 : 일반학교를 중퇴한 중 · 고등학생
♠ 교육내용 : 프로젝트수업, 특별활동, 신앙활동, 검정고시교과 등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교육함
♠ 입학사정 : 학부모 또는 보호자 그리고 학생과의 면담으로 결정
※ 인턴십 교사모집(2명) -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교사로서의 꿈을 키워가실 예비교사
※ 자원봉사자 및 전문인토 봉사자를 찾습니다!
교과 강의, 동아리활동, 특별활동지원, 각 분야전문인 (멘토)으로서 청소년에게 사랑과 꿈을 심어주는 보람을 함께하실 분





♠ 문의 : 033) 254-3205 홈피: http://www.hyoshin.or.kr (사)기독교한국효신선교회

우리 곁에 있는 山

춘천의 안산(案山), 향로산(香爐山)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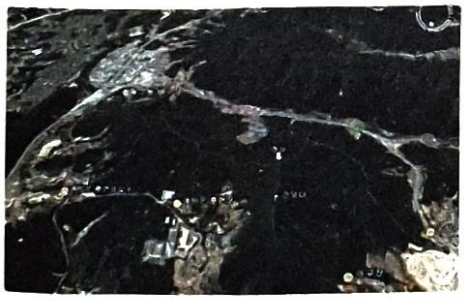
〈〈우리 곁에 있는 산〉〉은 춘천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지면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18번째 마지막 산으로 향로산을 소개한다. 여기서 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기회가 되는대로 하다가 보니 되어진 순서일 뿐이다.

"향로산"은 향로봉이라고도 부르는데, 칠전동과 송암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높이는 329m이다. 시내에서 서울 쪽으로 바라보면 눈앞에 보이는 산이다. 그러니 자동차로 서울을 다녀본 분이라면 틀림없이 향로산을 지나서 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산의 이름을 알고 지나다닌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산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제대로 대접을 받았던 산이다. 풍수지리에 따르면 집터 뒷산을 진산이라고 하고 앞산을 안산(案山)이라고 했는데(그런 구조를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구조로 본 것 같다), 춘천의 진산은 봉의산이고 안산은 향로산이다.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향로산은 정감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향로산에 오르면서 뒤 돌아보면 정면에 봉의산이 보이고 춘천이 반듯한 모습으로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나무에 가려서 그렇게 전망이 좋은 것은 아니다. 조금 더 가꾼다면 안산의 그 명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면을 시작하면서 춘천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향로산은 그런 의미에 가장 부합되는 산이 아닌가 한다.

등산로

지도를 구하다가 찾지 못했는데, 아래 사진은 어느 블로그에서 찾은 그림이다. 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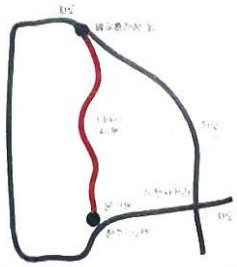
1 코스 : 서울 가는 옛 길(70번 도로)을 따라가다 칠전동 예비군 훈련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난 길옆에 들머리가 있다. 향로산 2.2km, 의암야구장 2.9km의 이정표를 만난다. 눈앞에 있는 봉우리까지 급경사를 이루어 30분 정도 가파르게 올라야 한다. 꼭대기에 오르면 향로산 표지석이 보인다.

그리고 서 있는 이정표는 국도변 0.7km, 20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칠전동배수장으로 하산하는 길이다. 반대편으로 의암야구장 2.2km 1시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정상과 전망대를 지나는 길이 된다. 사실 그 자리나 정상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향로산 표지석이 서 있는 자리에서 되돌아서 하산한다. 또한 의암야구장까지 가면 집으로 오는 길이 막막하기 때문일 것이다.



▲ 전망대에서 바라본 삼악산

2 코스 : 이 향로산은 온의동 뒷산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온의동 뒷산(공지산이라고도 함)과 연계해서 산책과 등산을 겸해서 하곤 한다. 이 코스의 진입로는 온의동 한주아파트에서 시작했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삼천동으로 새로 난 길로 인해서 길이 끊겼기에 그 길에서 출발하게 된다.





▲ 온의동뒷산 진입로

1.5km의 길은 산책하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미 온의동 주민들에게 사랑 받아왔던 산책로이다. 잘 정비되어서 아침 운동하기에 적합하다. 멸공훈련장(예비군훈련장) 가까이에 이르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놓여 있다. 여기를 지나 70번 도로를 건너면 바로 향로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연계 등산이 가능하다. 향로산 표지석까지 왕복으로 하면 2시간 정도 소요된다.

향로산의 매력

1. 산책을 겸한 가벼운 등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된다. 지금 산불방지로 인한 입산금지 기간이지만 주민들의 운동을 겸한 산들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 산이 그렇다.



2. 춘천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진산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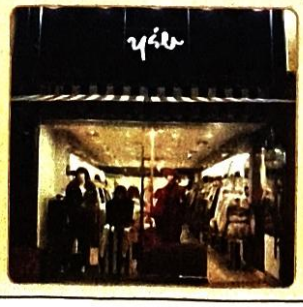
3. 동네 뒷산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사진은 칠전동을 바라보며 찍은 것인데, 칠전동 배수장으로 하산 하면서 만난 그림이다. 왠지 정겨운 느낌이 들었는데, 멀리 금병산이 보였기 때문일까? "우리 곁에 있는 산"을 소개하면서 처음 등장한 산이다. **마지막 글에 멀리 그림자처럼 서 있다. 마지막이나 처음이 그렇게 연결되어 춘천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 산들처럼 춘천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편집위원 고 재 만]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운전면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심영철 / 메시지 성경 / 300×150cm / 1990년 作

1,500권의 성경책이 피라미드처럼 쌓여있습니다. 이 작품전이 끝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분들에게 성경책을 나눠드렸다고 합니다. 작가는 공허해지고 뒤틀려 버린 예술의 양식을 말씀의 나눔, 곧 전도의 한 방식으로 화랑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그가 보여 준 작업을 통해서 아무리 오염된 양식이라도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에 따라서 전혀 딜리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생명을 가진 창조주의 작가들에 의해서 현대미술의 문제 많은 양식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적을 현대미술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편집위원 이 관 형]

12월의 기도

12월엔 가난과 자비가 공존하는 계절입니다.
배고픔의 설움과 은총이 함께 하는 계절입니다.
세상은 성탄의 기쁨으로 활기가 넘쳐나지만
슬픔의 고통 또한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여!
이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계절 12월에
의지할 곳 없는 저들의 영혼을 돌아 보사
주님의 은총이 비켜가지 않기를 간구하나이다.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신 그 택하심의 은혜를
고통 중에 있는 저들에게도 부어 주사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의 탄성이 온 누리에 찬양으로 퍼지게 하소서.

감사하는 영혼들의 무리가 더 많아지게 하심으로
슬픔의 소리보다 기쁨의 소리가 온 세상을 덮게 하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탄생하심을 모두 함께 기뻐하는
환희의 물결 가득한 12월이 되게 하소서.

시. 초록바람 한인순 (춘천한길교회)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12

얼음처럼 차가운 손과 발 수족냉증



이종빈 부원장
(영광한의원)

수족냉증의 원인

손발이 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충분하게 순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우선 심장이 펌프질을 힘차게 잘해줘야 하고 혈관이 막힘없이 잘 통해야 한다. 이는 우리 몸의 음기와 양기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뤘을 때 원활하게 이뤄진다.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체내상황을 크게 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기(陽氣)가 부족한 경우이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양기의 근본으로는 위로는 심(心), 아래로는 신(腎)이라할 수 있는데, 이 둘이 잘 협조해서 양기의 상태를 조절해야 온몸에 양기가 두루 잘 퍼질 수 있다. 심장은 화력을 만들고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는 '엔진' 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엔진이 부실하면 화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 신장은 다른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불을 붙여주는 점화장치역할과 그 외에 내분비기관의 기능까지도 포함한다. 호르몬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바로 신장의 기능이 조화를 잃었기 때문이다.

둘째, 음혈(陰血)이 부족한 경우이다. 보일러의 화력이 아무리 좋아도 난방배관에 난방수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방바닥이 전체적으로 뜨거워지지 않듯이, 양기를 아무리 북돋아줘도 음혈이 부족하다면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찰을 통해 음양의 성쇠가 어떠한지를 잘 판단해서 변별해야 한다.

셋째, 비위(脾胃)가 약한 경우이다. 한의학에서 비위라는 장부는 음식물을 잘게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화 하고 그것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 이 기능을 한의학에서는 '운화(運化)' 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변화에서 운송까지' 의 역할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음식물을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땔감형태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땔감이 좋아야 화력이 좋아지듯이 손발이 차가울 때는 땔감 공장이 불량한지부터 잘 체크해봐야 한다. 비위의 운화기능이 떨어지면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몸이 잘 붓는다. 또 추위도 잘 타고, 몸에 군살이 늘어나며, 잘 체하고, 자주 구역질이 날수 있다. 만성적인 변비에 시달리는 이들의 수족냉증은 비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다.

수족 냉증의 생활 요법

수족냉증은 평소 생활관리만 잘해도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첫째, 항상 즐겁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한다. 수족냉증은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 소심한 사람, 다시 말하면 심허(心虛)한 사람에게서 자주 볼 수 있다. 실제로 한의학에는 '기체즉혈체(氣滯則血滯)' 라는 말이 있다. 기가 돌지 않으면 혈도 돌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기는 혈액을 끌고 다니는 주인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운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면 손발이 찬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려면 기분 좋게 즐겁게 살아야한다. 기분이 좋아야 기가 살고 기가 살아야 음양을 조절하는 증력, 즉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둘째, 손발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온해야한다. 장갑도 끼고,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찬물과 따뜻한 물에 손발을 교대로 담근다. 따뜻한 물에 약 1분, 찬물에서 10여초 간 담갔다가 빼기를 반복하면 혈관에 탄력이 생기고 혈액순환도 촉진된다.

넷째, 잘 먹어야 한다. 빵이나 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다. 실제로 수족냉증이 있는 젊은 여성들을 보면 입이 짧은 경우가 많다.

다섯째, 심폐기능이 좋아지도록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한다. 심장은 혈액을 말단까지 보내주는 펌프이고, 폐는 연료가 잘 연소할 수 있도록 산소를 불어넣는 불구멍이다. 운동을 하면 이들 기능이 좋아져 화력이 좋아진다.

수족 냉증은 손발증상뿐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한다. 피로를 쉽게 느끼거나 어지럽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잘 체하거나 변비가 있거나 소변이 자주 마려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신체의 증상들을 잘 변증하여 몸속이 어떤 상황인지 해석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행복의 비결



2008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시기가 다가왔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소원'일 것이다. 가족의 건강이든지, 자녀들의 학업이나 결혼 등 진로든지, 경제적인 소생이나 발전이든 말이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나름대로 그 소원을 빌고 성취하기 위해 자기만의 신앙을 구축하고 최대한의 성의와 열심을 표현한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더불어 소원성취는 곧 '행복'이 목적이다. 물론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의 행복에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행복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 백성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면 하나님께서도 행복하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에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행복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기에서의 '복'을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곧 '행복'이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은 누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누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다. 그 답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율법'은 십계명, 모세오경, 성경말씀 전체 등을 다 포함하지만 특별히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 교훈을 붙들고 사는 삶이 '묵상하는 삶'이다.

성경은 성령님의 저작(著作)이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자신의 저작인 성경을 제쳐놓고 과연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겠는가?

큐티(Quiet Time)는 기도로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듣는 것이다. 그래서 이 큐티야말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의 본질인 것이다.

큐티(묵상)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들은 다음과 같다.

1.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큐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과 그 성품들을 체험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된다.
2.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져간다.** 신앙의 원리들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고민하고 하나씩 순종해 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체계를 세워 나가게 된다.
3. **내면의 치유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뿐 아니라 자신이나 타인들과 건강한 관계를 갖기 원하시기에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
4. **삶의 질서가 잡힌다.** 큐티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신 교훈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삶이 정리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럼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1) 3분 정도 기도하고 시작하라.

겨우 3분! 실제 해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순간 떠오르는 내 허물들을 아뢰고, 또 말씀을 보면서 기대하는 것들을 부탁하고, 좀 더 진지하고 간절하게 본문을 읽기 위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아마 더 걸리기도 할 것이다.

2) 본문을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두 번 읽어라.

큐티는 성경공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심각하게 따져가면서 읽을 필요는 없다. 본문의 내용이 대체로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읽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저자나 등장인물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읽으면 된다.

3) 본문을 묵상해라.

묵상은 명상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다. 이것은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다. 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참 막연한 말로 들릴 것이다. 말씀을 읽을 때 책을 읽고 공부하듯 하기보다도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식으로 말씀을 읽으면 좋겠다. 하지만 큐티는 혼자하기 보다 전문적인 단체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큐티에 목표를 두고 함께 격려와 도전을 하고 훈련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성서유니온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지역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날 그 날 필요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날 예비하신 은혜를 포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싸움을 싸워야한다. 말씀을 가까이 하므로 한 달 남짓한 2008년을 잘 마무리하고, 2009년 새해에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넘치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길 소망한다.

양 고 훈 목사(성서유니온선교회 사역국장)

예 향

계속 기도합시다!

세계적 중보기도자인 에드 실보소는 아르헨티나의 영적 부흥을 위해 쓰임 받은 목사입니다.

실보소 목사는 표본으로 '레지스텐시아'라는 한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 3년간 영적 전투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990년 초, 그 도시 인구 40만 명 중 1.5%만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두 가지 악령의 정체를 밝혀냈는데, 불화의 영과 무관심의 영이었습니다. 그는 중보기도 팀을 구성하여 1년 동안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집중적인 기도를 드리자 교회들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회에서는 1,700여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주께로 돌아왔고, 1990년 한 해 동안 그 도시의 결신자는 두 배로 늘었으며, 1990년 이후 아르헨티나는 부흥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춘천은 성시화운동의 세계적인 표본도시입니다. 춘천의 모든 교회의 부흥을 위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더욱 인내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편집위원 최상도]

성 시 만 평

이 관 형 · jysince93@hanmail.net



성탄절의 주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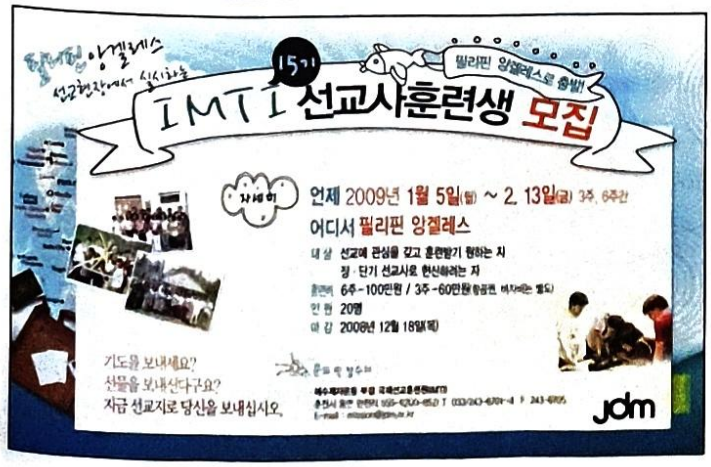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 영 조

편집 위원 : 조 영 춘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권 기 찬 고 재 만
김 춘 배 이 관 형 김 미 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냉 · 난방 에어컨 세척전문

제일 크리닝

에어컨 세척, 설치, 이전, 유지보수 전문

★ 사랑함과 동시에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정기적인 에어컨크리닝을 통해 에어컨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쾌적하고 시원한 실내 공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교회, 선교원, 어린이집은 50% 할인해 드립니다.

대표 박 종 영(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시 효자3동 37-6

☎262-6761 / 011-566-6769



사랑과 희망의 빛!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박재호)은 월드비전의 설립이념인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1976년 개관이래 이주 화전민 지원 사업, 지역개발사업, 가정개발사업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아동 · 청소년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전한 의식을 유도하여 보다 발전된 지역사회를 형성하며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월드비전 사업소개

㉮ 가족복지사업 :











멘토링 프로그램, 방과후교실, 사례회의, 가족지킴이사업 등을 통해 등록 가정 및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들의 일탈을 보호하고 기초학습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서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도우며 사회적 응력을 향상시키고, 강한 사회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돕고 있다.

㉯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생활비지원, 보건의료서비스, 물품지원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위기지원서비스,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저소득 아동들과 주민들에게 분기별로 생활비를 지급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동과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등록가정의 아동 · 청소년들에게 교육비, 학습자료비, 특별활동비 등 필요한 각종 교육 및 교육환경과 관련된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능력 향상과 재능을 개발하여 아동 ·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역량강화사업, 옹호사업(학교사회사업), 운영자문위원회, 후원자 조직관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참여와 등록가정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 정서적 지지 및 결속력,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지역사회 및 이웃에 대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후원자와 아동의 만남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서 후원의 지속성을 돕는다.

㉱ 교육문화사업 :

방학교실, 문화행사(파란글 꽃그림잔치, 연합찬양축제, 경로잔치), 문화 활동(청소년문화 활동, 어린이합창단)을 통해 등록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가 선용 및 자아성취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집단 간 친화력을 높이고 사회성 발달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자활사업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과 기능훈련 및 직업훈련 이수자에게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해피 프렌즈 :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해피 프렌즈 봉사단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필요와 복지증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 강원지역 아동청소년권리센터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강원지역을 대표하는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기관으로 지난 7월 선정되었다. 강원지역 아동청소년권리센터는 아동청소년 권리침해에 관한 모니터링 등 포괄적 감시 작업을 하며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및 전문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관계자, 학교, 지역사회 기관 등에 의한 권리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권리침해 상담 및 권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관련 민간단체, 유관기관의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 재가복지 :

지역사회 내 저소득 계층을 우선으로 재가복지서비스대상자로 선정하고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를 선정한다. 재가복지서비스 대상별 측정된 욕구와 문제의 진단 내용에 따라 지역사회의 인적 · 물적 자원을 동원, 활용하여 직 · 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대상자 및 가정에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적서비스, 결연서비스, 의료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주민교육서비스, 기타 사회복지관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등이 있다.

㉶ 노인주간보호센터 :

낮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3등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신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정서적,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키며 부양가족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의 해소와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으로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고 어르신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과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호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부양 기능을 유지 · 강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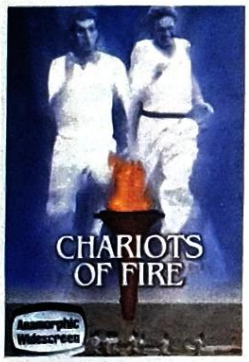
[☎244-7245, 254-7244 효자1동 373-90, chuncheon.worldvision.or.kr]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춘천와이신협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
Happy Bank 춘천와이신협
신 협에서도
화재보험, 생명보험, 카드 가입 가능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성도님들, 교회 단체거래시
각종 수수료와 금리를 우대해 드립니다.
운교본점: 255-1007
(1층 신협, 3층 기독교연합회, 4층 CBS방송)
강남지점: 261-1002
(퇴계 현진에버빌 2차 옆)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18>

불의 전차 (Chariots Of Fire)



위대한 영화, 그리고 위대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진정한 신앙에 뿌리를 두고 인생을 깊이 통찰하는 시각으로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탄생된다고 일단 정의할 수 있겠다. 우리 삶의 여러 양상들에서 아름다움을 투영해 보는 긍정적인 시선, 그리고 영혼의 흐름으로 서로 나누는 감동의 물살, 그러한 것이 모두에게 깊은 마음의 울림으로 오래도록 남는 것인지 모른다. 재능과 물량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감동의 보편성이라는 창조력에 참된 기독교 가치관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으로 인해서 더욱 성숙되어지는 믿음의 성장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여기에 그런 보기 드문 주옥같은 작품이 있다. 이미 벤허 같은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상을 휩쓰는 대작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지만 스포츠라는 분야에서 이러한 산 신앙의 바탕으로 빚은 영화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영화가 1982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 여러 영화상에서 수상한 이유가 바로 우리 시대까지 음미할 수 있는 이러한 보편성의 감동을 창출한 데 있다고 본다.

19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영국 출신의 두 육상선수 '에릭'과 '해롤드'의 집념을 다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영화이다. 기록 영화의 명장인 '휴 허드슨'의 극영화 데뷔작으로, 특히 반젤리스의 전자음악과 카노데로의 의상이 훌륭하며, 스포츠에 일생을 건 젊은이들을 소재로 평범한 스포츠 정신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간의 신념을 관철시키는 정신력의 경이를 그려 감동적인 드라마로 승화하였다. 1981년 골든 글로브 외국어영화상, 1981년 칸느영화제 남우주연상, 심사위원 특별상, 뉴욕 영화비평가상 감독상, 작품상 등을 수상한 걸작이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이안 찰슨)은 독실한 기독교도로, 자신의 꺼지지 않는 종교적인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달린다. 한편 해롤드(벤 크로스)는 잉글랜드 출신으로 유태인으로서 유태인은 열등하다는 편견을 깨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달린다. 두 사람이 경쟁을 위해 훈련을 하는 동안 이들의 삶이 교차 편집되는 가운데 서로 다른 욕망과 목표가 그려진다. 트랙을 달리는 모습을 통해 두 사람의 인간적 깊이와 고뇌가 그려지며, 헌신과 열정, 희생에 의해 얻어진 승리야말로 가장 고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홍성진 영화해설). 안식일 곧 주일성수를 현실의 갈등 속에서도 소중하게 지키려는 에릭의 태도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전사로서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나중에 그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중국에서 순교하게 된다. 건강한 스포츠맨으로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로서 이루어가는 감동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준다.〈상영시간 120분〉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현 시국을 바로보는 눈!

[사진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국가경제 안정 | 냉각된 남북관계 개선 | 뭄바이 테러

추운 겨울 혹독한 서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세우는 난방비 상승과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등 점점 더 서민 경제는 파탄 직전에 놓여 있다. 게다가 북한은 12월 1일부터 남북간 육로통행을 제한 · 차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 인원축소와 통행시간대 대폭 축소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인도의 경제 수도 뭄바이에서 11월 26일 밤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해 100여명이 숨지고 3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경제, 정치의 안정과 평화 회해 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테러로 피해를 입은 인도 사람들의 회복과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외환은행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개인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10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감리교회	광명장로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등신장로교회
베드로순복음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성결교회
새순성결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장로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양의문교회	예수존교회
예담교회	주영광교회
주향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등부교회
춘천영성감리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한빛장로교회	평화실로암교회
춘천와이신협	천일현수막
국민일보 춘천지사	영광한의원
제시뉴욕	정태철(경동보일러)
쏘인테리어	행복재기장기요양기관

강선희	강옥자	강태랑	김기태
김길홍	김리현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복심	김성국	김성희
김영근	김영영	김영일	김요섭
김은선	김재철	김재홍	김종찬
김진심	김태숙	김현배	김현철
김희경	남상구	마호숙	류재동
배진철	박난영	박동환	박래희
박제자	박종근	박형숙	변춘지
석지찬	송난의	신성균	심경희
심인섭	안미애	안정숙	안현주
양금환	엄필남	오의석	오홍수
원희정	유갑순	유근창	유명준
유성현	유영호	유인혁	유재형
윤성자	이규현	이내리	이동인
이명순	이무식	이병연	이병일
이상돈	이순자	이영진	이용규
이원근	이원기	이원영	이윤숙
이은수	이정이	이진주	이태경
이학규	이혜인	임재철	장기남
장기영	장선정	장소영	장소희
장요한	장창순	전영목	정규시
정은희	정재균	정재호	정재현
정주연	정찬복	조건이	조영호
조소현	조은제	조정일	조정자
주승희	지경화	최병숙	최상호
최을용	최종덕	최치권	최혜영
한성이	한희현	함종현	함학균
허미정	허순영	허언명	허인영
홍순복	홍순신	황명찬	황은주
황정섭	황진석	흠택기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척미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강 호
아버지학교 성경비(스텔) (서울동부)3기수료


선교농장(신창집농원)
배즙 판매
▷ 청정지역 · 친환경 농법 재배
▷ 가격 : 보통 시중가의 2/3 가격 공급
▷ 판매금 전액 아프리카선교에 사용.
☎ 033)435-0358, 011-895-4660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 효 근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동성교회

광야에서 연단의 세월을 보냈던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가지고 온 것은 보잘 것 없는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흔한 나무 막대기였지만 이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을 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힘과 권능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보잘것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능력의 막대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있다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이란 자리는 막중한 중책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어 오늘까지 도우시고 굳세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쓰신 주님, 다윗의 손에 있던 작은 조약돌을 쓰셨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 작은 능력, 작은 정성... 등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 질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치즈 제조업자 크레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는데 치즈를 꺼내러 창고에 들어가면 1시간 이상씩 있다가 나오곤 했답니다. 사업은 점점 번창하였고 치즈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크레포드에게 "성공비결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크레포드는 "저는 아는 것이 없는 무식쟁이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러 나가기 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역대상18:13)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쓰임 받았던 다윗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므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다만 충실한 충성을 요구하시고 바라십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자 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 동안 춘천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연도행회
1) 3일 클럽 전도자훈련
일시: 2009년 1월 5일(월) ~ 9일(금) 숙박
등록금 1차 마감(12월15일)까지 무료, 이후 20만원
인원: 선착순 40명
대상: 교사, 아동부 담당교역자 등 중3 · 고등학생도 가능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oefch/]

◆ 에스컴
1) 홀리워커즈(에스컴 스텝진) 수련회
일시: 12월 29일(월) ~ 31일(수)
2) 에스컴프레이즈 - 청소년들의 "예수님 생일파티"
일시: 12월 20일(토) 오후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대상: 모든 기독 청소년들
3) 15회 고3 영성훈련
일시: 2009년 1월 2일 ~ 30일 월~금 오전10:00-1:30
장소: 중앙성결교회 중고등부실
등록비: 50,000원 (교재비/간식비포함)
프로그램: 조별큐티 · 나눔, 로마서 성경공부
특강: 선교 · 심리 · 창조과학, 기초신앙훈련, 크리스천 생활백서 등
단기선교 2009년 2월 초 / 중국
문의: 244-5400 에스컴클럽 [club.cyworld.com/yescomclub/vel]
신유정 010-5422-2321, 박진용 010-8901-7006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춘천 C.C.C. 파송예배
일시: 12월 5일(금) 오후7시 장소: 춘천ccc회관
2) 강원지역금식수련회
일시: 12월 28일(주일)~31일(수) 장소: 양수리수양관
문의: 252-0542, 254-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문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rn]

◆ IVF
1) 강원 IVF 총회
일시: 12월 13일(토) 오후5시 장소: 춘천 IVF회관
2) 단기선교사 파송
일시: 12월 5일(금) 장소: 춘천 IVF회관
3) 지방사역협의회
일시: 12월 15일~17일, 16일~18일 장소: 진천
4) 종무식
일시: 12월 31일(수) 오전10시 장소: 춘천 IVF회관
문의: 252-5200

◆ JDM
1) 한국 간사회
일시: 12월 1일(월) ~ 2일(화) 장소: JDM훈련센터
2) 간사회 리트릿
일시: 12월 9일(화) ~ 10일(수) 장소: 홍천 대명콘도
3) 춘천지구 전체 중강예배
일시: 12월 11일(목)오후7시30분 장소: 온누리교회
4) 강원대학 연일집회
일시: 12월 18일(목) ~ 20일(토) 장소: 속초 일데콘도
5) 겨울집회 UTC
일시: 12월 26일(금) ~ 27일(토) 장소: 지구 회관
문의: 033)243-6701, 010-2704-3375

◆ GBT성경한역선교회
1) 비전기도회
일시: 12월 1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 삼원교회
2) 춘천지부 위클리프스쿨 수료식
일시: 12월 1일(월) 오후7시 장소: 예담교회
3) 전국위클리프스쿨 정기회
일시: 12월 9일(화) 장소: 가평 설곡국제기도센터
4) 리더십 세미나
일시: 12월 10일(수) ~ 12일(금) 강사 : 홍은선 선교사
문의: GBT춘천지부 이지혜 간사 017-383-2416
[chun.cheon@v2025.or.kr]

◆ 세계태권도선교회 춘천지회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9시-10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65

◆ 새부상개워사선교단 모임
1) 토요워십댄스반 개장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반9:30분~11:00, 오후반3시~4:30분
대상: 아동부(6세~15세), 성인부(직장인 · 주부 · 청년 · 사역자 등)
장소: 경원대태권도장(우석초교앞)
문의: 263-6022, 017-374-2440

◆ 제이락(춘천연합찬양단)
1) 정기예배(한 달에 2번)
일시: 12월 1일, 15일, 오후7시 문의: 010-9368-9656
장소: 이루어가는교회(cc볼링장 뒤)

◆ (재)기독교한국침신선교회
1) 춘천 대안교육 악생모집 (중고교생)
"적성을 찾아주고 꿈을 심어 주는 미국의 메트스쿨 같은 대안 학교를 지향"
2) 자원봉사자 및 전문멘토인 모집
청년봉사자: 스포츠, 동아리, 음악, 영어, 상담 등 청소년을 위해 함께 활동해주실 기독 청년.
문의: 254-3205 / H.P. 011-9737-1919

◆ 춘천기독한국무용선교단 모집
대상: 한국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분
위치: 후평동 인공폭포앞 1.5Km갈비 4층
문의: 춘천기독한국무용선교단 010-3180-5330

◆ 목회자 특구회원 모집
일시: 월-토요일 매일 오전6시 회비: 무료
장소: 공지천 족구장 문의: 011-361-1995

◆ 춘천교회 나눔의 집(노인요양원 호시설)
"편안하고 가정과 같은 쉼터"
대상: 65세 이상 할머니
문의: 244-1913, 011-367-4426 (천전감리교회 이복규목사)

◆ 강원도기독교미용인연합회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문의: 김명숙 019-432-5035, 정영희 010-7707-2225
전시안내 및 장소: 12월 12일 ~ 18일, 춘천미술관

◆ 성탄절 문화행사
1) 성탄트리점등식
일시: 12월 7일(주일) 오후5시 장소: 중앙로 기업은행 앞
2) 성탄절 거리만들기 및 사랑의 쌀 희망나눔
일시: 12월 8일 ~ 24일 장소: 명동거리, 지하상가

◆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 춘천지역기관설치제1호
65세이상 치매,중풍,장애 등으로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분.
문의: 011-366-4972, 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타공회장로)

색동저고리 한복연구소
한복사랑 22년
마음과 정성으로 한복의 멋을 이어나갑니다.
(신부님께는 예쁜 아암을 선물로 드립니다.)
투심을 모시듯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심경 김 기 순 권사(춘일교회)
☎ 243-9019, 011-1788-8406 [약사동 마을금고 옆]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베테랑이 상담해드립니다. 언제, 주말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 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성시화를 위한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11월 11일(화) 오전11시 사무국 월례예배를 드리고 연합회 및 기독교기관들의 총회와 춘천지역 교회들의 부흥과 연합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정재호사무총장(늘사랑교회)은 에베소서 6:10~20절 말씀을 통하여 "성시화운동은 영적인 싸움이며, 성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며, 춘천에 성령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 장로회 친선체육대회



제8회 춘천동서남북지방 장로회체육대회가 11월 8일(토) 오전10시 가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춘천의 감리교 동서남북지방 장로 부부들이 함께 모여 배구를 비롯하여 민속경기인 제기차기, 투호, 줄넘기 등을 통해서 화합과 일치,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모니



추수감사절을 맞아 춘천휴리클럽(회장:이학규) 주관으로 춘천성시합창단(단장:정세환) 제2회 찬양축제가 11월 11일(화) 오후7시 춘일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춘천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춘천성시합창단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쁨의 찬송' '이 산지를 내게주소서' 등 6곡의 성가곡을 선사하였다. 엘피스중창단(시온교회)과 한국컨티넨탈싱어즈가 함께 찬조 출연하여 젊고 박진감 넘치는 현대가스펠 음악으로 풍성한 찬양축제를 펼쳤다.

■ 기독영화 〈리턴〉상영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기독문화 정착을 위해 기독영화를 상영. 11월에는 13일(목) 오후7시30분 늘사랑교회에서 안드레이 즈비아긴체프 감독의 러시아영화 〈리턴〉을 상영하였다. 리턴은 어린 두 형제 앞에 12년 만에 나타나 존재감마저 희미한 아버지와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그렸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존재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기총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기총회가 11월 7일(금) 오전11시 평화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한균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는 "만민에게 주의 구원을"(시편 67:1~7)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시화운동은 미래지향적인 운동이며, 만민을 위한 복음운동이기에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부 총회에서는 사업 · 회계보고 후, 성시화운동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꾀하며 진지한 논의들과 함께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기독교연합회 · 교역자연합회 정기총회



춘천교역자연합회(회장:피종호목사)는 11월 13일(목) 오전10시30분 춘천동성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09년 신임회장에 지용찬목사(춘천은혜교회)를 선출하였다. 이어 오전11시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한균목사)는 2008년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 및 회계보고 후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 신임회장으로 장효근목사가 추대됐다. 장효근목사는 춘천출신으로 1988년 동성장로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고 있다.

원종국 목사 감독 취임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감독 이.취임 감사예배가 11월 1일(토) 오전11시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원종국감독은 김창수감독(신성교회), 김명기감독(원주제일교회), 박상혁감독(태장교회), 권오서감독(춘천중앙교회), 박거종감독(삼천교회)과 허천국회의원, 1,000여명의 성도과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지도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동부연회 17대 감독으로 취임하였다. 원감독은 취임사를 통해 "선한 청지기로서 연회 부흥과 교단 발전, 그리고 화합과 일치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특히 "미자립교회와 평신도 훈련을 지원하고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이임한 16대 김남철감독(속초교회)에게는 찬하패와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원종국(61 · 춘천제일감리교회 담임목사)감독은 목원대와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3년부터 춘천제일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 사랑의 집 입주식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단장:유양수)과 함께 11월 14일(금) 오후2시 신북읍 천전리 소망의 마을에서 '2008 사랑의 집짓기' 입주식 및 협약식을 가졌다. 소양강댐관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총 3억5,000만원을 춘천지회에 지원, 2009년에도 무주택자들을 위한 안식처를 함께 짓기로 협약하였다. 사랑의 집은 3천190㎡의 터에 지상 2층, 2개동으로 모두 8가구가 입주하게 됐다.

■ 장로교연합회 정기총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춘천지회(회장:권기호목사) 정기총회가 11월 19일 오전11시 광명장로교회에서 열렸다. 권기호회장은 설교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장로교회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김종익목사(광명교회)가 추대됐다.

■ 추수감사예배



강원농협기독교선교회는 11월 20일(목) 오후6시30분 강원농협지역본부 5층 회의실에서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민경욱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김주환 강원기독교총연합회장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국가와 춘천의 번영과 농촌과 농업을 위하여 조영춘성시부본부장과 임영식장로가 특별기도를 하였다. 이어 이학규휴리클럽회장의 축사, 김명기본부장의 인사말씀, 김주환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 헤리티지 & 매스콰이어 콘서트



춘천CBS(본부장:김세환) 주최로 헤리티지 & 매스콰이어 콘서트가 11월 20일(목) 오후7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날 7인조 블랙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는 'Get on up', 'You raise me up' 'I'm walking' 등 10곡의 가스펠을 힘과 열정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여 청중을 사로잡았으며, 함께 찬양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취재 · 김 미 경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2008 성탄 거리 만들기 & 사랑의 희망나누기

♣ 성탄 트리 점등식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트리 점등예배

일 시 : 2008년 12월 7일(주일), 오후 5시
장 소 : 중앙로 기업은행 앞



♣ 성탄 거리 만들기

지하상가와 명동번영회 함께 성탄 거리 만들기 운동을 펼쳐 모든 시민들에게 성탄의 바른 의미를 전달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 또한 기존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기 간 : 12월 7일(월) ~ 24일(수), 오후 5시 ~ 7시
장 소 : 지하상가, 명동 옛 군정 앞



♣ 사랑과 희망의 쌀 나눔 센터 운영

불우이웃과 복지단체, 그리고 북한돕기운동을 펼쳐 사랑과 희망을 나눈다. 교회에서는 성미를 모아 보내주면 감사하겠다.

기 간 : 12월 7일(월) ~ 23일(화)
장 소 : 지하상가, 명동 옛 군정 앞
예 정 : 23일 저녁 일일산타 자원봉사자 발대식(선정가정에 희망의 쌀 전달)





♣ 성탄의 추억 나눔 백일장 및 성탄트리만들기 경연대회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보내오면 희망의 쌀을 나누며, 성탄을 주제로 한 감동적인 시, 수필, 간증문 경연대회 및 가정과 기관에서 만든 아름다운 성탄 트리 경연대회를 벌이는 등 시민 축제 마당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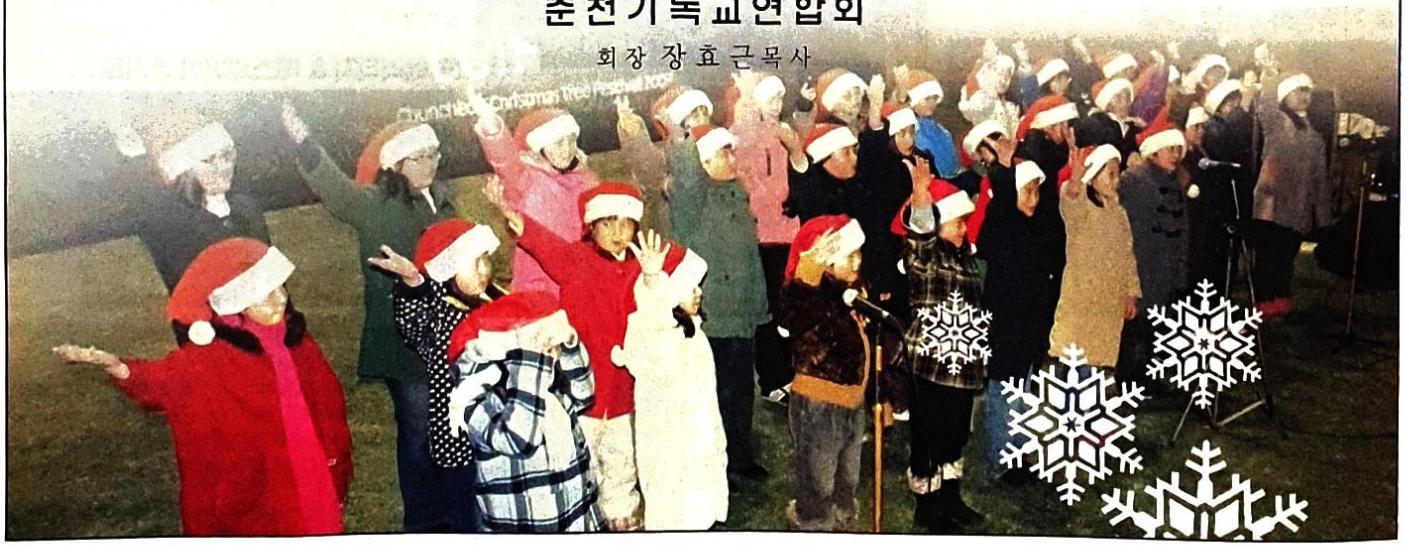
기간 : 12월 8일부터 문화집회가 이뤄지는 명동과 지하상가에서는 성탄트리에 소망과 사연을 적어 걸 수 있다.



※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면 춘천엔 부흥과 축복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장효근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